

허공은 형상이 없고 불성은 생멸이 없다

43 글자로 역사를 말하는 명봉사

추석날 아침 뒷산에 오릅니다. 고향 뒷산이 대대로의 조상님들이 묻혀 있는 선산(先山)입니다. 산꼭대기에 넓적하게 자리 잡은 16대조 할아버지의 묘소를 둘러보고, 그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에 절을 올립니다. 선산에 있는 그 많은 묘소들에 일일이 표시석을 세운 뒤 "이제 누구 묘소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됐다"며 흡족해 하시던 아버지.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으니 표시석이라도 세우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그리웁니다.

큰 벼슬을 하거나 높은 덕망으로 훈장을 받지도 못한 민초의 무덤일망정 그 앞에 표시석 하나가 서있음으로 존재감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 작은 돌에 새겨지는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꾸러나간 고달픈 생애와 조상의 피를 후손에게 전한 그 충실한 임무가 "평택임공00지리"라는 글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부도발 기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탐비는 한 선지식의 생애와 그 시대의 총체적인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금석학에서 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한 시대의 정신과 문물제도를 함께 읽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군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에 있는 '경성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境淸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를 진건하러 갑니다. 신라의 이두문자가 발전된 형태로 남아 있는 탐비입니다.

고려 태조 24년(941)에 세워진 이 탐비는 고려 초기의 이두문자로 된 행정적 양식을 갖춘 문서가 그대로 새겨져있는 점에서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성북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2월 보물 제164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선지식의 생애와 그 시대의 문물을 전해주는 그 기표(記標) 자체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 탐비는 보물 중의 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내비개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차를 달립니다. 남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소백의 능선들이 운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사람 사는 마을마다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고, 마당가에선 명절 쇠러 온 사람들이 세워 둔 자동차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를 돌리고 산소를 찾아가 성묘하는 모습도 더러 보입니다.

명봉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슬쩍 비껴서서 길 하나를 만들어 준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신라 헌강왕 원년(875)에 두운(杜雲)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니 계곡보다 깊고 그윽한 역사를 가진 도량입니다. 그러나 창건 이후부터 조선전기까지의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조선 현종 3년(1662)에 화재로 입었으나 중수했다는 기록과 이후의 간략한 역사가 전할 뿐입니다.



지난 2월 보물로 승격된 명봉사자적선사능운탑이 보호각 안에 모셔져 있다.

하지만 자적선사 홍준(洪俊 882~939) 시대의 명봉사는 내원암과 법화암을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한 때 100여 명의 스님들이 기거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무량수전과 좌우의 묘사를 새로 지어 단아한 풍모를 이룬 명봉사에는 조선 영조11년(1735)에 세워진 '문종대왕태실비'가 있습니다. 무량수전 옆에 두 기의 비가 서 있는데 왼쪽이 '문종대왕태실비'이고 오른쪽이 명봉사자적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비의 양식이 태실비의 특감입니다. 원래는 정조 9년(1785)에 세워진 '사도세자태실비'였습니. 명봉사 뒤편 봉우리에 있던 것을 법당 옆으로 옮긴 것인데 일제강점기 때 그 비문을 깎아내고 사적기를 새겨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의 역사를 새기고자 역사를 지워버린 그 우매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자적선사능운탑비'를 진건하러 갑니다. 환한 대낮인데도 숲은 어둡습니다. 자적선사능운탑비는 보호각 안에 서 있습니다. 보호각 옆에 서 있는 안내판은 아직도 '경성북도 유형문화재 제3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승격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 옛 명찰을 달고 있으니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습니다. 보호각 나무장삼 밖에서 비를 살펴봅니다.

귀부는 머리 부분이 사라져버려 허전하기 이를 데 없지만, 몸통 앞쪽의 발톱과 등의 귀갑문은 선명합니다. 귀갑문 속에도 꽃 모양들이 새겨져 있어 조선에 공력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면이 마모되어 앞면의 글씨는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뒤쪽 역시

마모가 심한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니 글자의 형태가 조금씩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읽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수도 화려함과 웅장함을 경계하기라도 한 듯 네 마리의 용이 표현된 것 같은데 그리 분명한 형상은 아닙니다. 가운데 제역의 자리도 마모가 심해 글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돌이 마모된 탐비지만 그 존재의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물론 비에 새겨졌던 글자들의 대부분이 판독 가능한 것은 금석학의 선구자들이 탁본을 남겼기 때문인데 <조선금석총람>이나 <한국금석전문>에 내용이 전합니다. 그 내용들이 1979년에 해독되었는데 이 탐비에 신라말기보다 진척된 양상의 고려 초기 이두문자가 발견됨으로써 탐비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통해 탐비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탐비의 비문은 최언위(崔彦爲 868~944)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언위는 최치원 최승우 등과 함께 당나라에서 유학한 해외파였습니다. 상당한 지식과 문장을 갖춘 이들에게는 '3회'라는 칭호가 따라 붙었다 합니다. 최치원이 화려한 수사적 기교를 자랑하는 사륙변려체를 구사하며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썼다면, 최언위는 사실적인 내용들을 담담하게 기록한 당대 고승들의 비문 10여 점을 남겼습니다. 소백산 비로암 '진공대사보법탐비'와 창원 명봉사 '진경대사보법능공탐비' 사자산 흥녕사(법흥사) '징호대사보인탐비' 등이 그의 문장입니다.

비문에 이두문자 새겨져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탐비 봉림가풍 전수한 자적선사 명산승지 탐방하며 전법

비문은 '허공은 형상이 없고 불성은 생멸이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뒤의 몇 글자가 마멸되었고 '이러한 진여를 생각하여 모든 실성(實性)을 터득할 수 있으니, 마치 색이 곧 색이 아니고, 공 또한 공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하겠다. 증생의 망녕된 생각이 마치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오인하는 것이고 명(名)이란 오직 거짓된 이름일 뿐이니 흡사 신기루와 같대'고 이어집니다. 반야의 세계를 초탈한 도인의 생애를 그려나가는 장중한 서곡인 것입니다.

비문에 의하면 자적 선사는 학문을 숭상하는 지방 호족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글공부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출가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창원 명봉사에서 진경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봉림가풍을 전수한 자적선사는 전국 명산과 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도량을 길렀고 많은 선지식을 탐방하여 지혜를 넓혔습니다. 고려가 개국한 뒤 태조의 존경을 받아 개성 송악산의 귀산사(龜山寺) 선원에 회상을 열어 제방의 남자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올 때와 갈 때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빠름과 늦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적선사는 신라와 고려 두 나라를 살면서 중생들에게 '미혹한 것으로부터 반성하게 하며 빈손으로 가서는 가득히 얻어서 돌아가게 했다'고 하니 그 끊임없는 수행으로 증득한 지혜를 널리 회향했던 것입니다. 태조 22년(939) 10월 귀산선원 법당에서 세속 나이 58세 승남 48세로 입적했는데, 비문은 '돌아가신 모습은 살아 있는 것 같았고 과일 같은 입술은 마치 말을 하고 있는 듯 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문에서는 '그 달 6일에 문인(門人) 등이 영구를 메고 명봉산의 북쪽 산기슭에 임시로 가장(假葬)하였다'는 구절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태조가 입적 소식을 듣고 애석해 하면서 시호를 '자적선사', 탐명을 '능운지탑'이라고 추증했다는 대목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귀산선원에서 세워졌을 것이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지금 명봉사에는 자적선사의 부도가 전해지

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오면서 그 자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삼석각 앞에 팔각의 기단석과 팔각 탑신석 그리고 옥개석이 놓여 있는데 온전한 모습이라면 제법 기품이 있는 부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봉사 주지 화광(燄光) 스님에 따르면 이 부도의 부재들은 명봉사 옆 계곡 법화암 자리에서 발굴된 것인데 주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적선사의 것으로 추정할 학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산선원이 활기를 더하던 시기에 경성선원이었고 자적선사가 머물렀던 큰 도량의 역사가 너무도 깊이 묻혀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빛들에는 비문의 본문 외에 음기(陰記)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서 이두 표기의 한 예를 읽어 봅니다. 음기는 이 비문이 도평성에서 승도들에게 내린 행정 양식을 갖춘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즉, '師矣啓以僧矣段 赤牙射山中親處○元聞 爲成爲內臥乎亦在之'라는 문장에서 쓰인 矣는 '-의' '-으로'를 矣段은 '-잇단'으로 '-은'과 같은 의미, 爲는 '?', 爲內臥乎亦在之는 '하였는 일이오'로 각각 해석되는 이두식 표현입니다. 이 밖에도 乙(을) 乙(의) 乙(으) 必(비) 爲(거) 爲(거) 등의 이두식 표현들이 읽혀집니다.

자적선사능운탑비가 담고 있는 이두문자의 국어사적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 산재(散在)하는 스승들의 탐비가 갖는 문화사적 가치도 높다 하겠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문명을 전하는 하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임연태 (시인·본지는설위원)



명봉사 삼석각 앞에 놓인 부도의 부재들.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다.

현지사 소개 그 일곱번째 주제 - 관음태교 -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비를 드리워 관음태교를 부촉하시다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만현 큰스님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 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리라.'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현지사의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깊은 삼매 속에 들었을 때에, '정법명왕불(佛)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법화경 보문품의 부처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거듭 거듭 경전상의 관음태교를 널리 보급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유태인과 일본인들의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의 이면에는 그들의 선진국형 자력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佛果)를 이루신 현지사의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창하신 관음태교를 실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정법명왕부처님)께서 직접 현신하시어 당신의 크신 우주적 위신력으로 아기 영혼체의 업장을 깨끗이 씻어주는 물론 소멸까지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로 이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음태교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자력 태교법보다도 견줄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최상의 타락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정법명왕불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태교법입니다. 우리 조국인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를 이끌어 갈 동량을 낳을 수 있는 관음태교법을 5억의 세계 불자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세계적 인재인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개월간의 태교기간은 출산 후 평생에 걸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의 건강과 인성, 상당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 있어서도 태교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아이의 영혼체는 어머니의 뱃속에 들게 되고 임신 기간 동안 영혼체의 업이 태아의 육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태교는 이미 어머니의 몸 안에 잉태된 태아에 대하여, 재능을 개발하고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음태교는 태아에게 반영된 업을 정화하여 재능과 품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유입된 악업을 영계의 단계에서 소멸하여 태아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신 전에 우수한 지능, 건강, 복덕을 갖춘 훌륭한 성품의 영혼체가 어머니와 인연을 맺게 할 수도 있어 세상의 그 어떤 태교보다 가장 본질적인 방법의 태교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에 따라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 나라의 동량이 될 훌륭한 대통령도 낳을 수 있고, 노벨상을 받거나 세계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갈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문을 빛내고 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세계적인 영재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비·영유아 부모를 위한 "관음태교" 제1기 수강생 모집요강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기간 : 2010년 12월 5일(일) ~ 2011년 1월 9일(일) 6주간
4. 교육시간 : 일요일 각3시간씩
5.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본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6. 원서접수 : 11월 1일부터 (전화접수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7. 강의 주제 및 강사 :

- 정 규 수 업 -

-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 도현스님, 남전스님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한 위신력을 포함>
-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 해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 특 강 -

- ◆관음태교사례(-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교정원장 혜명스님 특강
- ◆덕산스님 특강<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윤운수(의학박사)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김병기(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원종식(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산모건강제조 -이영미(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 문 의 : 현지사 대전본원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